

# 훈민정음 어제서문

2008년 한글날, 네이버 나눔명조, 나눔고딕. 한자 네이버사전체.

國之語音 異乎中國 與文字不相流通 故 愚民 有所欲言 而終不得伸其情者 多矣. 予 爲此憫然 新制二十八字 欲使人人 易習 便於日用耳.

우리나라의 말소리가 천자 계신 나라와 달라서 글자(한자)와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이런 까닭에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. 내가 이를 위하여 불쌍히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나니 사람마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나날이 쓰는 데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.

우리나라의 말소리가 천자 계신 나라와 달라서 글자(한자)와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이런 까닭에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. 내가 이를 위하여 불쌍히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나니 사람마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나날이 쓰는 데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.

우리나라의 말소리가 천자 계신 나라와 달라서 글자(한자)와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이런 까닭에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. 내가 이를 위하여 불쌍히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나니 사람마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나날이 쓰는 데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.

우리나라의 말소리가 천자 계신 나라와 달라서 글자(한자)와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이런 까닭에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. 내가 이를 위하여 불쌍히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나니 사람마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나날이 쓰는 데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.